

‘케데헌’ 돌풍에
박물관 관람 늘고
농심 기업 홍보효과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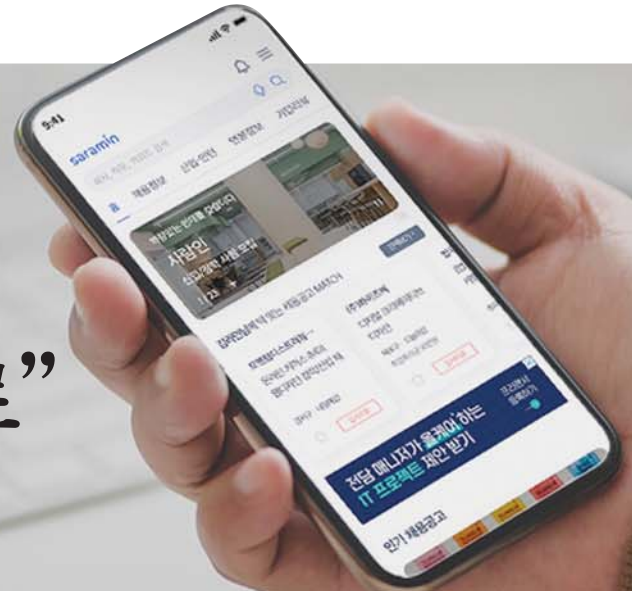
metro®

Life

패션도 채테크
잘파세대가 키운
리셀 열풍
L2



“AI 기반 추천 시스템 고도화 채용 넘어 ‘커리어테크’ 플랫폼으로”



인터뷰 | 황 현 순 사람인 대표

사람인이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채용 플랫폼을 넘어 커리어 전주기 설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14일 사람인에 따르면, 사람인HR은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전면 고도화하며 채용 플랫폼을 넘어 커리어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커리어테크’ 플랫폼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현순 사람인HR 대표는 “AI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의 복잡한 선택 과정을 도와주는 ‘설계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기술을 중심에 두기보다, 사용자 경험과 커리어 흐름에 맞춰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황 대표는 “기술은 앞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추천이 너무 정확해서 자연스럽다’고 느낄 때, 진짜 플랫폼이 완성된다. 우리는 기술보다 경험을 먼저 디자인한다.”

사람인은 2016년 업계 최초로 AI 기반 공고 추천 기능을 도입한 이후, 2022년부터는 추천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설명 가능한 AI’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채용 전환율과 구직자의 관심 직무 이동 흐름, 조직 적합도까지 분석해 정밀도 높은 추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고도화했다.

황 대표는 사람의 커리어가 과거처럼 단선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MZ세대와 중장년 구직자 모두 직무 전환이나 유연한 커리어를 선호하며, 이는 플랫폼이 ‘직업 매칭’ 수준을 넘어 ‘커리어 설계’ 도구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채용이라는 한 순간이 아니라, 입사 전 탐색부터 직무 성장, 이직까지 커리어 전체 흐름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람인은 그 흐름 전체를 안내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사람인은 최근 구직자 대상 커리어 진단 서비스, 기업용 인재 추천 구독 서비



황현순 사람인 대표

AI기술, 자동화 아닌 선택 돕는 도구로 진화
직업매칭 수준 넘어 커리어 전 생애주기 지원

채용기간 단축, 사용자 재방문을 증가 효과
글로벌 기술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본격화

구직자에 단기 채용 넘어 커리어 전략 제안
기업에는 인재확보, 유지까지 서비스 확장

스 등 신규 기능을 지속 출시하고 있다. 플랫폼 내부 알고리즘은 지원 이력뿐 아니라 실제 클릭·탐색 행동, 전환 성공률 등을 반영해 추천 정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사람인은 AI 기반 커리어 콘텐츠 큐레이션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데이터를 보면 MZ세대 사용자의 70% 이상이 채용 공고 클릭 전 리뷰, 조직문화 사례 콘텐츠 등을 먼저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용자 인터뷰, 직무 후기, 실제 입사 성공 사례 등을 추천 시스템과 연동해, 탐색에서 지원으로의 전환율을 높이고 있다.

황 대표는 “채용은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상호 선택의 과정”이라며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해석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협업 역시 검토 중이다. 현재 사람인은 내부적으로 MS Azure 기반 AI 모델 연동을 실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조직 진단, 인재 유지 분석 등 고도화된 기능 확장을 구상하고 있다. 관련 세미나 개최나 공동 연구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황 대표는 “우리는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 연계해 더 빠르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부 역량과 외부 파트너십을 동시에 강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람인은 올해 하반기 중 커리어 진단 테스트, 조직문화 자가 평가 기능, 전환 가능 직무 추천 도구 등의 신규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및 전문가 매칭, 커리어 커뮤니티형 네트워크는 기획 단계에 있으며, 사용자 참여 기반의 커리어 생태계 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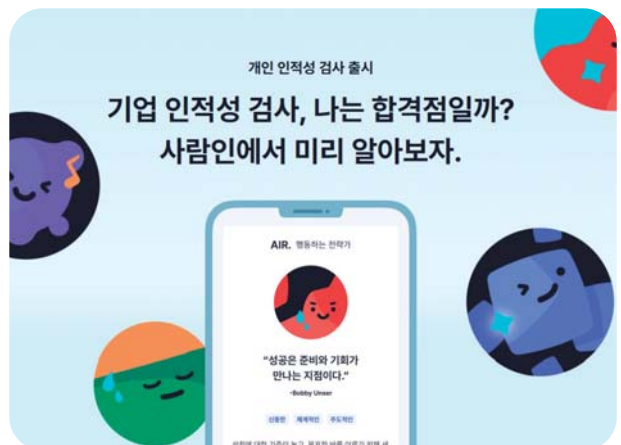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채용 플랫폼이 아니다. 사용자의 커리어 전환과 성장의 흐름을 함께 설계해주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기술은 도구일 뿐 사람을 이해하는 구조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I 면접관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면접 연습

사람인 AI 모의면접.



사람인 인적성 검사 서비스.

메트로 한줄뉴스



▲첼시, 클럽월드컵 정상 올라…이강인의 PSG 5관왕 실패
▲이정후, 전반기 마지막 경기서 2루타 작렬…대타 김혜성은 침묵
/사진 뉴시스

▲쇼트트랙 코치 교체하나…빙상연맹, 인사위 개최
▲강남구, 외국인 합창단 창단…참가자 상시 모집

▲중년 여성의 삶 담은 뮤지컬 ‘다시, 봄’, 지역 투어 나서
▲피아니스트 예뵈 브론프만, 데뷔 50주년 기념 내한 리사이틀